

# 관세청 불자 '전국 연합조직' 띄우고 활기

## 11월 2일 대전 광수사서, 초대 회장에 피재기씨 체계적인 신행활동·공불련 활성화에 큰 기대

지난달 성운갑 관세청장을 제4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회장으로 추대한 관세청 불자들이 전국 규모의 연합회를 결성, 공불련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나서 주목된다.

관세청 불자들은 11월 12일 대전 광수사에서 관세청 본청을 비롯해 6개 본부세관 소속 전국 30개 세관의 불자모임을 하나로 묶는 관세청불자연합회를 창립했다. 이로써 그동안 본청과 본부세관, 일반세관 등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관세청 불자회는 연대의 틀을 갖추고 신행활동을 비롯해 공동의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성운갑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진욱 대전광역시청 불자회장, 천홍욱 공불련 사무총장 등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재기 동해세관장이 연합회를 이끌어갈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피재기 관세청불자연합회장은 취임사에서 관세청 불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감사원과 건설교통부가 주도해 공불련의 기반

을 다졌다면 이제 관세청은 공불련을 한층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스스로 공불련내 중추적인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나아가길 제시했다.

관세청불자연합회 창립은 '도약하는 공불련'을 만들겠다는 성운갑 공불련 회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관세청 불자들의 활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천홍욱 관세청 감사관을 사무총장으로 한 공불련 제4기 사무국을 측면 지원토록 하는 거시적인 플랜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공불련 활성화 기획단'과 '공불련 활성화 로드맵'이 구성·작성될 경우 공불련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완성된다.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세청불자연합회는 탄탄한 조직구성과 활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실다지기에 나선다. 부산과 서울 등 일부세관을 제외하고 활동이 거의 없던 만큼 어려움을 겪어왔던 현실을 극복해



관세청불자연합회가 창립일에 따라 공불련 조직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11월 12일 대전 광수사에서 열린 관세청불자연합회 창립법회 모습.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산과 서울 본부세관 외에 인천, 대구, 광주, 인천공항 등 본부세관을 신행조직의 거점으로 삼고 소속세관의 신행활동을 이끌어가는 조직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중의 공불련 총무담당(서울본부세관 세

관운영과장)은 "관세청불자연합회 창립으로 관세청 불자들이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며 "여세를 몰아 관세청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불련 신행혁신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우리단체 이사람

강동수

운불련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회장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며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불리는 강동수(52·법천) 회장이 대표가 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등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전국 최고'가 되겠다는 강 회장의 원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하면

서 새로운 영역의 일을 찾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강 회장이 취임 직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일은 하나의 생활권인 안양과 과천, 의왕, 군포지역 불자들의 힘을 하나로 규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4개 도시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스님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해 승낙을 얻어냈다. 12월쯤이면 광역신도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그만 신행단체가 광역신도회를 결성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스님들은 걱정하면서도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스님들이 지역불교 통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기쁘습니다."

강 회장의 발로 뛰는 노고 덕분에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회의 활동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한 장소에서 열린 법회도 11월부터는 지역사찰을 순회하며 열기로 했다. 지역사찰과의 유

대를 강화하고 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펼쳐온 자비행도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대상이 다양하다. 안양 대화복지관에서 병원을 찾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차량을 지원한 것은 물론, 안양시노년복지센터에도 나들이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11월 22일에는 안양 명문보육원 아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월 세 없이 바쁜 요즘 강 회장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들이다.

"100대의 가입차량을 200대로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불교를 심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봉영 기자

## 외국인근로자 무료 종합검진

### 선재의료회·한선협회... 90% 진료비 지원도



선재마을의료회 등은 11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100여명에게 무료건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11월 13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봉사가 진행됐다. 매주 일요일 봉은사에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재마을의료회가 한국한선복지협회 서울지부,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은 100여명은 네팔, 태국, 스리랑카, 티베트인 등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과 안산, 김포 등의 공장에서 근무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었다.

진료현장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타국살이의 설움이 진하게 배어났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인적사항을 좀처럼 밝히려 하지 않는 모습과 조금이라도 빨리 진료를 받고 돌아가기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여오숙 선재마을의료회 간사는 "아무리 안심시켜도 행여 단속반이 들이닥칠까 노심초사하는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오래전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겪어던 아픔이 전해져 왔다"며 "우리는 왜 좀 더 그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지 못하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진료를 위해 건강검진 차량 2대가 동원됐다. 진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흉부 X-선 촬영과 피부질환 검진,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전염성질환 검사, 소변 검사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에 온 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특별한 검진이었다.

진단 결과는 한달이 지난 후 나온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무료 검진을 실시한 선재의료회와 한선복지협회, 결핵협회 등은 병이 진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90%의 진료비를 지원, 치료해줄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범당 개원



신청사 준공으로 청주시 주성동 100번지로 자리를 옮긴 충북지방경찰청이 경승실 및 경찰법당을 새 단장, 문을 열었다.

충북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도광)과 불교회(회장 조성호)는 11월 12일 충북지방경찰청 우암홀에서 경찰법당 봉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과 태고종 중앙종회 부의장 원봉 스님(청주 보현사 조실), 최석민 충북지방경찰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원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 청사, 새 법당에서 한없이 자비로운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익혀 어려운 사정으로 경찰을 찾는 이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충북경찰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불교회는 경찰법당을 회원은 물론 청내 불자와 일반경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불교회 활성화에 전력하기로 했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 회원배가 위해 전력

### 전력인불자련 김용사서 연합법회 봉행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는 불자들이 구성된 전력인불자들이 연합법회를 열고 모임활성화를 위한 회원배가를 위해 전력하기로 결의했다.

전력인불자련연합회(공동회장 이인규 김영만)는 11월 12일 문경 김용사에서 '2005 가을 연합법회'를 열었다(사진). 성지순례와 병행해 열린 이날 법회는 본사반야회를 비롯해 월성원자력, 고리원자력 반야회, 경주지점 서광회, 영광원자력 선우회 등 8개지회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불자모임이 없는 강원지사에서 대표단이 동참해 불자회 창립을 발원해 의미를 더했다.

박봉영 기자

# 대원불교대학 마포 불교방송 학사이전

경

축

## 총동문 초청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모교를 빛내주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원불교의 원력으로 불자들과 함께해 온 대원불교대학이 마포 BBS 불교방송으로 학사를 이전합니다. 금번 학사이전 기념으로 아래와 같이 총동문초청 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대원불교대학 운영이사회장 송석구(전 동국대 총장) | 대원불교대학 학장 허경구 |                         |
| ■ 운영이사                      |               |                         |
| 권기중(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조성택(고려대 교수)   | 황수로(일맥문화재단 이사장)         |
| 이성인(불교방송 사장)                | 구자선(태우주택 회장)  | 이영숙(코모도호텔대표)            |
| 김인숙(불교여성계발원장)               | 송영근(예비역 중장)   | 최명준(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무순] |

### 안 내

- 일 시 : 불기2549(2005)년 11월 26일 (토) 오후 5시
- 장 소 : BBS불교방송 3층 다보원 큰법당(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출구)
- 문 의 : 대원불교대학 교무처 02)754-1613 / 773-9171

※ 새로이 동문회 명단을 작성코자 하오니 주소 및 연락처를 학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 가까운 동문들께 연락하시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Advertisement for Daewon Buddhist University featuring images of the building and text about the graduation ceremony and relocation to BBS Buddhist Broadcasting.